

# 잇단 '제주 도순 녹나무 보호구역' 논란

### 녹나무 자생하지 않는 지역 등 재산권 침해 민원 제주도 "적정성 용역 진행... 문화재청과도 협의"

제주도가 천연기념물 제162호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문화재 보호구역'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보호구역 내 녹나무가 자생하지 않는 지역이 있는 데다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나무 자생지는 지난 1964년 1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지정구역은 32필지 38만3896㎡이고, 이에 따른 보호구

역은 지정구역 경계에 있는 33필지 2만6778㎡다. 여기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약 500m 가량이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이다.

하지만 천연기념물 지정 이후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난 2018년 문화재청에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보호구역과 인접한 지정구역 내 녹나무가 자생하지 않는다는 결과도 나온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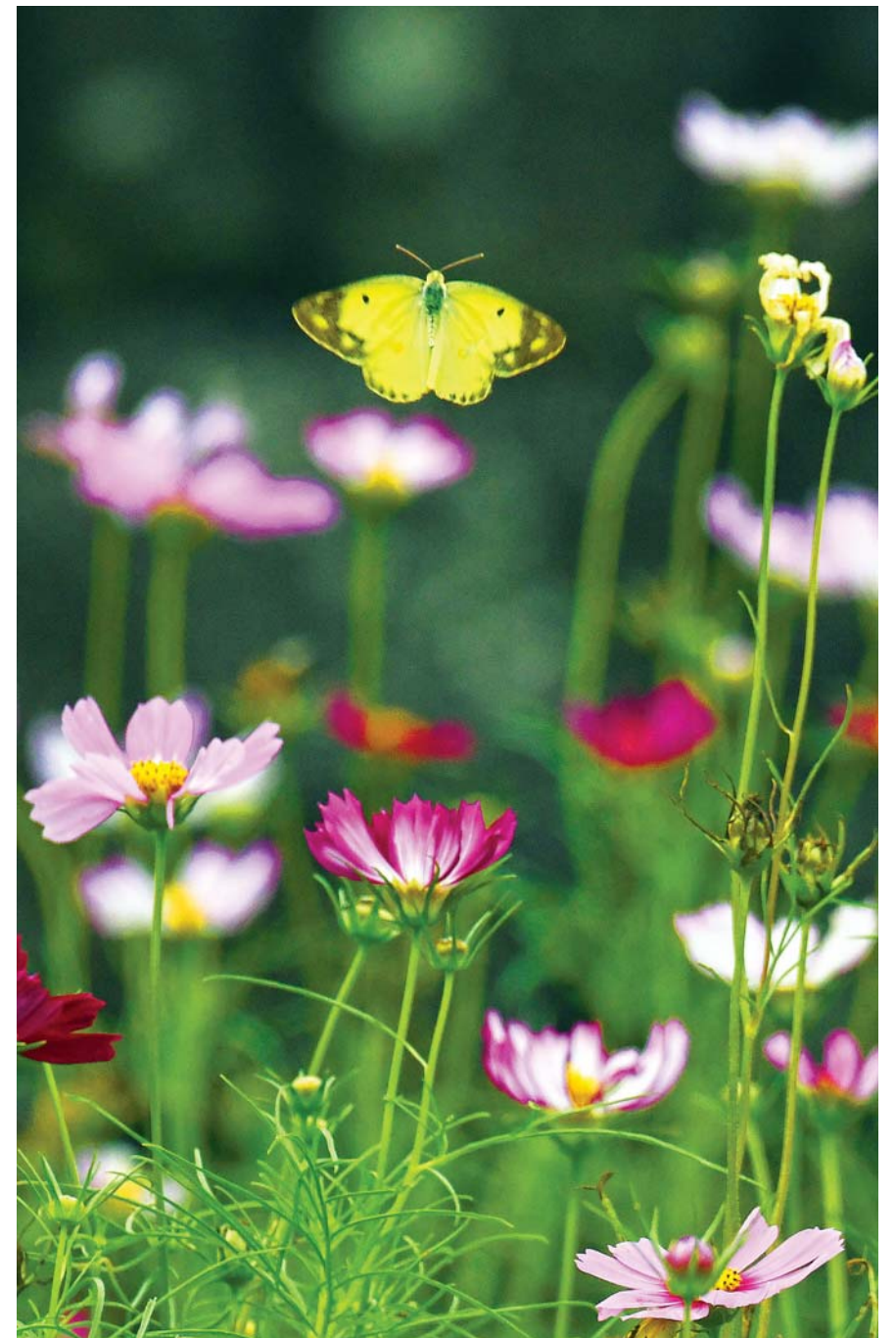
실제 지난달 30일 녹나무 자생지 인근 토지구 6명은 문화재 구역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토지구들은 "과거 약(藥)이 귀할 때는 사람들이 녹나무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자생지 보호를 위한 문화재 지정이 1964년 이뤄졌다"며 "하지만 현재는 녹나무 개체 수가 너무도 많아졌기 때문에 보호의 명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으로 토지구들은 땅의 현상변경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녹나무 자생지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강정마을회에서도 "녹나무가 자생하지 않는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침해가 초래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녹나무 자생 현황과 보호구역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녹나무가 흔해졌다는 토지구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며 "이달 말 주민설명회를 거쳐 본격적인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용역에서 보호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문화재청에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코스모스 찾은 배추노랑나비 13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음민속마을 고터에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나자 배추노랑나비가 꿀을 따기 위해 꽃잎 위로 날아들고 있다. 강희만기자



## 제주 올레길-스페인 순례길 교류 본격 한국-스페인, 상호 상징구간 만들어 공동마케팅

제주 올레길과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이 상호 교류를 시작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스페인 관광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 제주 상징물인 돌하르방과 간세를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이번 제주 상징물 설치 기념행사는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 스페인 순방을 계기로 한국과 스페인 간 관광교류 활성화에 목적을 둔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협력사업을 통해 한국의 제주 올레길과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에 상호 상징구간을 만들어 공동마케팅을 펼치기로 했다.

상징구간으로 제주올레 1코스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아레가 구

간이 선정됐다.

제주 상징물로는 돌하르방과 제주올레의 간세가 세워졌으며, 스페인 산티아고 상징물로는 조가비가 디자인된 표지석이 상호 상징구간에 설치된다.

이번에 산티아고 행사는 제주 상징물을 아레가 상징구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기념행사와 부대행사가 함께 열렸다.

부대행사에서는 제주해녀를 소재로 한 무용 공연을 선보였으며, 제주의 자연을 담은 사진 10점과 제주올레 사진 10점을 활용해 디지털 방식으로 사진전을 개최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스페인 갈리시아주와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교류 협력하기로 했다. 이태윤기자

## 제주해역 남방돌고래 폐사 원인은? 제주대·서울대 공동 부검교육 을 2회 실시

제주 주변 해역에서 폐사체로 발견되는 남방돌고래와 상괭이 등 해양포유류의 폐사원인 분석을 위한 부검교육이 실시된다.

제주대학교는 서울대와 함께 오는 18-22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에서 제주지역의 주요 관심 대상인 '남방큰돌고래, 상괭이'를 중심으로 부검교육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은 이번을 포함, 올해 2회에 걸쳐 실시된다.

남방큰돌고래는 유일하게 우리나라 제주연안 주변해역에서 12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으며, 최근 6년간 한 해 평균 10여 마리의 폐사체가 발생하고 있다.

다른 해양포유류인 상괭이는 우리나라 서남해 해역에 주로 분포하며, 제주해역에는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제주대 고래·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상괭이 폐사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제주해역에 상괭이가 서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대 김병엽 교수팀은 올해 교육에서 총 20개체의 해양포유류 폐

사체(남방큰돌고래 3개체, 참돌고래 1개체, 상괭이 16개체)를 부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직접적인 폐사원인은 물론 건강·질병상태 및 이동경로 등 생태학적 측면을 고려한 간접적인 폐사원인을 분석해 해양포유류의 전반적인 폐사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올해 부검교육은 서울대 수의과대학 박세창 교수 팀과 홍콩요양병원에서 공동연구로 진행 중인 비침습부검기법(virtopsy)을 처음으로 도입해 진행된다. 'virtopsy' 기법은 CT(컴퓨터단층촬영) 등의 영상의학 데이터를 부검에 활용하는 비침습적인 시각적(Virtual) 부검 방법이다. 부검 전 폐사체의 병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 부검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다. CT 촬영을 통해 폐사체의 나이를 추산할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정보 등 폭넓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번 1차 교육은 전국 8개 대학 수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가자 모집을 진행했다. 신청자 중 선발된 총 26명의 학생들과 서울대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의 연구원들이 참여한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 "폭염정보엔 오후 2~5시 옥외작업 중단을" 제주도, 공공근로 등 종사자 건강보호책 강화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주시가 여름철 옥외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폭염 대비 종사자 건강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열사병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중대 산업재해에 해당됨에 따라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시의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을 보면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경우 '주의'에 해당된다. 이때는 매 시간마다 10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고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5시에는

옥외 작업을 단축하거나 시간대를 조정하도록 했다. 경고(체감온도 35도 이상 또는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매 시간 15분 휴식, 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 또는 교대 근무를 안내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15개 부서 소관 사업의 옥외 근로자 1184명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자체 점검을 진행 중이다. 폭염에 취약한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바다 환경지킴이 등 옥외 작업 근로자가 있는 부서에는 팔토시, 땀흡수 및 통풍을 위한 안전모용 내피, 아이스박스 등 보냉 용품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취 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늘 초심을 잊지 마시고 도민 화합과 제주 발전을 위하여 혼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영 훈**

**군위오씨중파종친회 회장 상수 외 종친일동**

고문단 남준·명필·문호·세종·성삼·순명·승일·영훈·용관·인택·천·홍식  
 자문위원 동욱·성택·승익·홍부      지회장 남필(대정)·명필(서귀)·상근(구좌)      종 손용복  
 부회장 석삼·준석      감 사 명옥·상금      사무처장 창섭      간 사 동협  
 이사진 병철·도현·동근·명권·명기·명환·문성·문철·상화·승주·시은·정훈·창석·태유